

전주발전 위해 정치권과 공조 강화

시 간부공무원 국회 방문 지역구 국회의원 보좌관과 국가예산 확보 방안 논의 법조삼현 로파크 건립 등 시 현안 예산 반영 건의

전주시가 전주발전을 위한 더 많은 국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 정치권과 공조에 나섰다. 시는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주요 사업 담당 국장과 지역 국회의원 정책보좌관 등과 간담회를 갖고 국가 예산 확보 및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시 간부공무원들은 2020년 국가예산 확보 중점 대응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설명하고 정책보좌관들과 전주시 주요 현안 해결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특히, 시는 △법조삼현 로파크 건립 △전주한옥마을 무장에 복지관광 선도지역 조성 △산화합플라자 건립 사업 등 주요 건의사업이 기재부 단계에서부터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줄 것을 건의했다. 법조삼현 로파크는 △독립운동기아자 대한민국 초대 대법원장으로서



전주시는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주요사업 담당 국장과 지역 국회의원 정책보좌관 등과 간담회를 갖고 국가예산 확보 및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건의했다.

법기초가 되는 법률을 마련한 '기인 김병로 선생' △청렴·강직한 검사로 검찰의 위상을 높인 '화강 최대교 선생' △죄수들에게 헌신적 사랑을 보여준 법률을 입은 성직자, '사도법관 김홍섭 선생'을 기념하는 공간이다. 시는 사업비 확보를 거쳐 오는 2023년까지 현 전주지방법원과 검찰청 부지의 건물을 리모델링해 법조

삼현 로파크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전주한옥마을 무장에 복지관광 선도지역 조성의 경우 휠체어 장애인과 유모차 등이 편안하게 여행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시와 전북대가 함께 추진하는 산화합플라자 건립은 산화협력기반 집적화와 산화연 협력을 기반으로 지

역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다. 전주시 기획조정국 관계자는 "정치권과의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그간 중앙부처 대응단계에서부터 중앙부처뿐 아니라 국회의원실을 수시로 방문해 사업을 설명하는 등 정치권과의 공조활동도 병행해왔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찾아가는 생애 첫 도서관 이야기'

전주시립 송천도서관서

전주시립 송천도서관은 이달부터 전주시역 가정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 등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찾아가는 생애 첫 도서관 이야기'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전주시역 영·유아들에게 도서관과 친해지고 책 읽는 습관을 길러주기 위해 추진해온 것으로 평일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맞벌이 가정을 위해 도서관이 어린이집을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확대한 것이다.

선정된 어린이집에는 자원활동가와 어린이자료실 담당자가 직접 방문해 아이들에게 그림책이 들어있는 책 꾸러미를 나눠주고 영유아를 위한 책 놀이 활동을 진행하게 된다.

또한, 시립도서관은 '생애 첫 도서관 이야기'의 후속 프로그램으로 부모와 아이, 책 놀이의 주제로 부모교육도 지속 운영하고 있다.

부모교육은 오는 8월 29일 효자동서관의 부모가 행복해야 좋은 육아가 가능하다를 주제로 한 특강을 시작으로 오는 11월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립도서관 홈페이지(www.jonju.go.kr)를 참고하거나 전화(063-281-6600)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송효철 기자

조선시대 역사문화 복원 '착착'

전주시, 풍남문·전주부성 학술조사 내용·종합정비계획 주민설명회

서문, 북문 등 전주부성 복원사업이 조만간 착수될 것으로 보인다.

전주시는 10일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옛 전주부성 터를 구도심 100만평 문화심장터로 만들기 위한 '전주 풍남문, 전주부성 학술조사 및 종합정비계획'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전주부성 종합정비계획 초안이 수립됨에 따라 주민과 상인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계획에 반영하고 전주부성 복원 거점지 대상 주민들과 상생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용역 수행기관인 우석대산학협력단의 조법중 교수는 조선시대 전주부성 현황에 대해 소개했다. 이어, 은민균 교수가 보물로 지정된 풍남문 정비와 조선시대 전주부성 성벽 및 성문 복원 방향을 골자한 전반적인 복원사업의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시는 우선 사진자료가 확보돼 복원사업이 용이한 서문(옛 서문과출소 인근)지역을 대상으로 먼저 복원을 추진하되 동문과 북문에 대해서는 토지매입 등 비용과 실효성



전주시는 10일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옛 전주부성 터를 구도심 100만평 문화심장터로 만들기 위한 '전주 풍남문, 전주부성 학술조사 및 종합정비계획'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해 복원방향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 관계자는 "주민설명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시의회 및 전문가 자문을 받아 전주부성에 대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문화재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시행할 계

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선시대 전주부성은 고려말 전라도관찰사 최우경이 처음 쌓은 것으로 전해지며 이후 1734년(영조 10)에 전라감사 조현명에 의해 대대적으로 신축되었다가 일제강점기 폐성령에 의해 철거됐다. /송효철 기자

노후 급수관 개량 공사비 지원 확대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 내달부터 소규모 공동주택까지

노후화된 옥내 급수관 개량 공사비 지원대상이 소규모 공동주택까지 확대된다.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본부장 오길중)는 '전주시 급수조례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그간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도 오는 8월부터는 급수관 개량공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고 10일 밝혔다.

노후 급수설비 지원사업은 건축물 내부의 부식성 노후 급수관을 개량할 경우 공사비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것이 핵심으로, 시는 올해 총 2억840만원을 투입해 연중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부식성 자재가 사용된 주거용 노후 단독주택(85㎡ 이하)의 경우 옥내 급수관을 개량(세척, 갱생, 교체)할 때 총 공사비의 50%범위 내에서 지원 받을 수 있다.

또, 전용면적 85㎡ 이하인 세대가 50%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최대

3000만원, 다가구 주택(330㎡ 이하)은 최대 1500만원, 학교 및 사회복지시설은 총 공사비의 70%범위 내에서 2000만원까지 각각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맑은물사업본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오는 8월부터 20세대 미만 공동주택 3개 단지(58세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올해 동서화동 거산화동 맨션에 노후 급수관 개량 공사비를 지원했다. 올 하반기에는 △평화2동 삼성강남아파트 △서노송동 풍남맨션아파트 △반월동 한강아파트 △금암동 동남국민아파트에 노후 급수관 개량 공사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오길중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장은 "옥내급수관의 노후화 또는 부식으로 인해 부적합한 수도물을 공급 받는 시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사업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수돗물 무료수질검사 간편 신청 가능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 '우리집 수돗물 안심확인제' 운영

수질 의구심 갖는 시민들 대상으로 접수 받아 결과 공지

수돗물의 안전성에 의구심을 가진 시민들은 수돗물 안심확인을 신청하면 공금증을 해소할 수 있다.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는 시민들이 이용하는 수돗물의 수질을 무료로 검사해주는 '우리집 수돗물 안심확인제' 전용 홈페이지 운영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우리집 수돗물 안심확인제는 시민 누구나 전주시 홈페이지(www.jonju.go.kr) 또는 물사랑 홈페이지(www.ilovewater.or.kr)에서 검사를 신청하면 전주시 수질검사실 검사요원이 직접 각 가정을 방문해 수도꼭지수 시료를 채취해 무료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15일 이내에 홈페이지에 그 결과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검사항목은 수돗물 급수과정에서 2차

오염이 우려되는 △탁도 △pH △철 △구리 △잔류염소 △아연 등 1차 항목에 △망간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염소이온의 4개 항목을 추가한 10개 항목을 검사하고 있다.

특히, 맑은물사업본부는 최근 전국적으로 적수현상이 발생해 수돗물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만큼 수돗물 안심확인제를 통해 각 가정에 공급되는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를 회복시킨다는 구상이다.

오길중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장은 "질 좋고 깨끗한 수돗물을 생산·공급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수돗물 안심응용 방안을 강구하고 안전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음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先 안전 확보, 後 초동조치'

전북경찰청, 고속도로 안전확보 FTX 실시

전북경찰청이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대한 안전 확보 야외기동훈련(FTX)을 가졌다.

10일 전북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제9지구대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3일간 장수고속도로 진안 마이산 휴게소(익산) 및 진안IC에서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건사고에 대한 현장 처리 방법 교육과 출동 경찰관의 신변 안전확보를 위한 야외기동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모의훈련은 '先 안전 확보, 後 초동조치'라는 경찰의 안전을 일깨우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 고속도로 순찰 업무를 맡은 경

찰은 2차 사고 위험이 높고, 현장 처리를 최우선으로 여기던 관행이 있어 인식의 전환 필요성이 강조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훈련 내용은 고속도로 순찰 중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근무자의 행동요령과 현장 토론, 안전하고 신속한 사건 처리에 대한 논의 등이다.

정진영 9지구대장은 "고속도로의 특성상, 현장 안전조치의 미숙은 중대한 결과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현장 경찰관의 신변 안전보호와 2차 사고 예방을 위한 모의훈련을 생활화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실제 고속도로 순찰 업무를 맡은 경 /강석훈 기자

편의점서 절도에 성폭행 시도

편의점 종업원을 성폭행하려 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덕진경찰서는 강간 미수 등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3시경 전주시 덕진구 모 편의점에서 종업원 B모(22·여)씨를 참고로 끌고 가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편의점에 들어와 양주 2병을 훔쳐 도주, 5분 후 다시 돌아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당시 B씨의 강력한 저항으로 A씨는 범행을 포기하고 도주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편의점과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A씨를 체포했다.

조사 과정에서 A씨의 성폭행 등 성범죄 전과 5명의 전력은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강석훈 기자

구직중인 청·장년에게 '희망의 일자리' 제공

전주시, '2019년도 구인·구직 만남의 날' 개최

만두 제조업체 푸드웨어 30명 채용 목표로 면접 진행

일 자리를 찾는 청·장년층과 적합한 인재를 찾지 못하는 중소기업체를 연결해 주는 맞춤형 일자리 행사가 열렸다.

전주시는 10일 시청 4층 회의실에서 구직을 원하지만 일자리를 찾지 못해 취업문제로 고민하는 청·장년층 취업을 향상과 적합한 인재를 찾지 못하는 중소기업체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맞춤형 일자리 행사인 '2019년도 제6회 청·장년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전북 최대 만두 제조업체인 (주)푸드웨어가 총 30명 채용을 목표로 참여했으며 생산직 일자리를 희망하는 청·장년층 구직자 50

여명이 참여해 현장면접을 진행했다. (주)푸드웨어는 공장 시설 증축으로 인해 오는 9월까지 총 100여명의 정규직을 채용할 계획으로, 시는 필요한 구인 인원이 충족될 때까지 인력 채용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주)푸드웨어의 채용인력은 만두제조공정의 만두성형, 포장, 선별 등 단순 생산 업무로 주야 2교대, 주 5일 근무조건에 월평균 250만원 이상의 급여를 받는다.

면접회장은 전주시청 일자리지원센터(063-281-2812~3)로 전화하면 구인사항과 면접일정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김봉경 전주시 일자리청년정책과장



은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통해 인력 채용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게 구인홍보부터 면접, 채용에 이르기까지 원스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우수한 인력을 선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구인·구직자간 일자리 매칭율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불륜 저지른 줄 알고'... 아내 둔기로 폭행

살인미수 혐의 60대 경찰 조사

별거 중인 아내가 불륜을 저지른 줄 알고 찾아가 둔기로 폭행한 60대 남편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모(67)씨를 불잡아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A씨는 전남 오후 9시 25분경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한 주택에서 아내 B모(63)씨를 둔기로 수 차례 내리친 인신 위협을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B씨가 자신을 피해 달아

나자 추적해 길거리에서까지 둔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목격한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체포했다.

현재 B씨는 머리 등을 심하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아내가 불륜을 저지른 것 같아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강석훈 기자

전주매일 PDF 지면보기 서비스 www.jmaeil.com에서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